

#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교육원**은 통일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이나 소재를 대상으로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시리즈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통일 강좌**’ 시리즈의 47번째로 발간되는 이 소책자에서는 북한 내 한류 확산에 따른 현상과 영향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동질감 회복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 책자의 내용은 통일교육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위촉한 연구용역 결과물을 정리한 것으로, 반드시 통일부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이 책은 스마트폰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CONTENTS

01

## 북한에서의 한류

6

1. 남북한 주민들의 경계 허물기
2. 한류, 통일의 바람

02

## 북한 내 한류 경로와 시청 형태

16

1. 시청방법 및 형태
2. 남한 영상물의 취득 및 경로
3. 최근 김정은 시대 북한 내 외래문화 확산 매체

03

## 한류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48

1. 남한에 대한 생각 바꾸기
2. 정치·사회적 내용에 대한 인식
3. 북한내 한류의 역기능

##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 04

#### 한류확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62

1. 북한 당국의 외래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비사회주의 단속반(비사회주의 그루빠)를 통한 단속조 운영

### 05

#### 한류와 북한사회의 변화 70

1. 주민의식 변화에 따른 사상통제 이완
2. 시장과 한류 동반 확산
3. 한류와 신세대
4. 남한 따라하기 현상

### 06

#### 한류의 영향과 통일 84

1. 한류의 영향과 새로운 기회
2. 문화로 여는 통일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7

##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 I

## 북한에서의 한류

1. 남북한 주민들의 경계 허물기
2. 한류, 통일의 바람

# I

## 북한에서의 한류

### 1. 남북한 주민들의 경계 허물기

통일은 우리에게 정말 장밋빛 미래일까? 분단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점차 상실되어 간다. ‘통일한국’은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미래의 그 어느 때나 있을법한 꿈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어쩌면 ‘통일을 꼭 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에서 통일 미래의 꿈조차 잃어간 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왜 굳이 통일을 해야 하는지, 오히려 통일이 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을 목 놓아 부르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무관심 속에 통일은 어느새 사람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야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우리시대의 담론은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우리사회에서 통일은 힘겹게 짊어지고 가야 할 부담스런 짐이 된 것 같다.



반세기가 넘는 분단의 시간 속에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함께 남북한은 상대 체제에 대한 갈등을 넘어 '사람'에 대한 두려움, 거부감도 깊이 내면화되고 있다. 70년 동안 헤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원래 한 동포였으니 아무 일 없었듯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전쟁을 경험하고 서로의 체제가 옳다 주장하며 갈등과 반목의 적대적 시간을 보낸 남북한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남북한이 한민족이라 말하지만 오랜 분단의 세월로 인해 우리는 문화적, 정서적으로 많은 차이가 생겼다. 통일은 그런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 함께 살아가야 할 일이다. 정치·경제적 통합과 제도적으로 하나가 된다고 해서 통일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남북한 사람들간 문화적, 인식적, 정서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통일이 비로소 완성된다. 서로가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서 거부감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말에 '너나들이'라는 표현이 있다. '서로 너, 나 하며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일컫는 말'이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너나들이 할 수 있을까?

남북간 문화적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다. 지금부터 10여 년 전인 지난 2005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남북합작 광고(CF)를 찍은 일이 있다. 당시 남한의 톱스타 이효리와 북한 만수대예술단 소속 무용수인 조명애가 중국 상하이에서 만나 국내 모 기업의 핸드폰 광고를 촬영한 것이다. '하나의 올림'이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북한의 무용수가 출연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화젯거리가 되었다. 조명애는 2002년 8.15민족통일대회에서 북측 기수단으로 입장하여 한국에 많이 알려졌고, 공연장에서 화려한 장고춤을 선보이며 국내에 팬클럽까지 생겨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재미있는 것은 한 인터뷰에서 조명애가 밝힌 이효리에 대한 첫인상이었다. 조명애는 “이효리가 조선여성 같지 않고, 서양사람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조명애의 눈에 비친 이효리는 왜 서양사람 같이 보였을까? 조명애가 생각하는 ‘조선여성’은 또 어떤 이미지였을까?

당시 CF에 나온 모습을 보면 조명애가 생각한 ‘조선여성’과 ‘서양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조명애는 북한 여성들이 즐겨 입는 ‘조선옷’(치마저고리)을 입고 있는 반면, 이효리는 노란색으로 머리를 염색



〈그림〉 당시 CF의 한 장면(이효리와 조명애의 모습)

하고 신체가 많이 노출된 옷을 입은 장면이 대조적이다. 조명애의 시선으로 본 이효리의 외형과 머리 모양새는 마치 서양 사람처럼 인식된 것이다.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는 외형적 모습뿐만 아니라 언어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난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015년 7월을 기준으로 3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한국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바로 북한식 말투와 억양 등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이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제도와 법률은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착 이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 안의 사회적 차별과 차가운 시선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같은 ‘조선말’인데 불구하고 왜 나만 알아듣지 못 하는 것 같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한다. 더욱이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외래어와 신조어들

은 더욱 소통을 어렵게 한다.

또한 요즘 우리 사회의 언어생활에서는 무조건 말을 줄여서 부르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학생식당을 줄여서 그냥 ‘학식’이라고 부르는 형태다. 필자는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문화로 여는 통일’이라는 과목을 강의한다. ‘문화로 여는 통일’을 과연 학생들은 무엇이라고 줄여 부를까? 이 수업의 이름은 학생들 사이에 ‘문통’으로 통한다. 이처럼 우리사회 내부에서조차 세대 간 언어 차이가 심각한데 70년이라는 세월동안 서로 헤어져 살아온 사람들의 언어와 문화적 격차는 얼마나 다를까. 남북한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그저 같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70년의 분단 상태가 만들어 낸 남북한 사람들의 문화·정서적 차이를 극복하고 사람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알아가기가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통일 논의는 주로 경제적 부분의 통일편익이 강조되었다. 통일한국이 되면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 이제는 경제적 수치로써의 통일편익뿐만 아니라 정서적, 인식적 차원에서 체감할 수 있는 통일을 이야기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적, 정서적, 인식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람의 통일이 중요하다.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합과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는 북한의 사회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이해하고 남북한이 서로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적 기반을 통해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면 문화접점을 통해 서로에 대한 거부감이나 적대감을 줄여 나가야 한다. 북한당국은 사상교양과 학습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남한 사람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의 이기적 인간’이라고 교육시킨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은 외부정보가 폐쇄된 북한사회에서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정치 선전과 학습으로 ‘사회주의인간형’<sup>1)</sup>으로 개조된다.

남한 역시 지난 시기 철저한 반공교육으로 인해 북한 사람에 대해 한민족이라기보다는 그저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지만 남한 사람, 북한 사람으로 구분하며 서로가 적대적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다.

남한 사람의 북한 사람에 대한 인식은 지금 우리 곁에 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필자는 외부강의 시 늘 이런 질문을 한다. “북한에서 온 분과 결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북한에서 온 분이 선생님이로 근무하는 학교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낼 수 있는지?”, “북한에서 온 분과 동업을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다. “왜 하필...”, “왜 굳이...” 라는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다. 이러한 대답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

---

1) 북한 문헌은 “사람자신을 개조하여 모든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강운빈, 『인간개조리론(위대한 주체사상총서 6)』(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3. 참조.

서 남북한 사람간의 문화접점을 통해 인식적 격차를 줄이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통일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남북한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서로 만날 수 없이 헤어져 살아가는 분단 너머에 있는 저들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 2. 한류, 통일의 바람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한류는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남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 질문하면 K-POP으로 대표되는 한류라 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소프트파워가 국력의 또 다른 원천이 되는 글로벌 시대에 한류는 국격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sup>2)</sup> 이제는 대중문화의 인기를 넘어 한국산 제품과 서비스 산업, 관광분야로까지 ‘한류’라는 표현이 사용되며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sup>3)</sup>

그런데 한류가 또 다른 희망의 메시지로 확산되는 곳이 있다. 바로 분단 70년의 장벽이 드리운 북한이다. 북한하면 의례히 독재, 폐쇄국가, 핵무기 등 정치군사적인 면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북한과 한류는 웬지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외부정보의 유입이 철저히 차단되고 감시와 통제가 일상

2) 유상철 외, 『한류의 비밀: 소프트 파워, 소프트 코리아의 현장을 찾아서』(서울: 생각의 나무, 2005), p. 24.

3)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한류 포에버』(서울: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2008) 참조.

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사회에서 남한의 대중문화가 인기를 누린다는 것이 사실일까?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한다는 북한에서 어떻게 남한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을까?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sup>4)</sup> 북한이 탈주민들의 증언은 물론 북한의 공식문헌에서도 남한 영상물 시청에 따른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라는 내용이 직접 언급되고 있다. 외부정보와 문화를 엄격히 차단하고 통제하려는 북한 당국의 단속을 넘어 남한의 영화를 비롯해 드라마, 오락 등의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CD(DVD), USB 등을 통해 북한 내부로 유입·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를 보는 또 다른 창이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영화나 드라마, 대중가요를 통해 남한을 새롭게 인식하고 간접적이거나 자유를 경험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영상물을 접하면서 제한적이거나 자본주의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해 경험하는 것으로도 남북 간 사회문화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나타난다. 그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철저히 주입된 정보를 통해 외부세계를 인식했던 북한 주민들로서는 남한 미디어가 외부세계를 경험하는 출구가 되는 셈이다.

북한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남한 영화나 드라마 시청은 남북한 주민들의 연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행위는 남북한 사람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분단의 거리를 좁히는 계기

---

4) 북한에서의 한류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의 종합검토 및 향후과제에 대한 부분은 임석준, 강동완, 김현정 "한류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10권 2호(2014) 참조.

가 된다. 북한에서는 외래문화를 ‘자본주의 날라리풍’, ‘부르주아 날라리풍’ 등으로 부른다.<sup>5)</sup> 김정일 시대부터 강조된 외래문화 차단 의 모기장론<sup>6)</sup>은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를 봉쇄하라’는 내용으로 사상전을 강조한다.<sup>7)</sup>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은 단순히 남한 대중문화가 북한에 유입되는 현상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어떠한 파급효과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확장된다. 남한 대중매체의 북한 내 확산은 분단된 남북한 사회를 넘나드는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단구조 재편성에 기여할 것이다. 그럼 지금부터 북한당국의 감시를 피해 자본주의 날라리풍에 빠진 ‘아랫동네 날라리’들을 살펴보자. 그들은 과연 어떻게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판매하는지, 남한 영상물로 인해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북한에서의 한류현상은 통일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자.

5) 연합뉴스가 대북소식통을 인용하여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2011년 8월 1~6일 신의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현지 주민의 옷차림과 무질서등에 대해 “평양북도가 자본주의의 날라리판이 됐다”며 검열을 지시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2011년 8월 16일; 통일연구원, 『주간통일정세』, 2011-34호 p. 2 참조. 아울러 지난 2015년 7월 24일자 노동신문은 “총포로 우리 세대를 어찌지 못한 놈들은 지금 너절한 부르주아 날라리풍으로 조선의 새 세대들을 녹여보려 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부르주아 날라리풍’을 직접 언급하고 있다. 『노동신문』, 2015년 7월 27일.

6) 북한에서 ‘모기장론’은 모기에 비유된 자본주의 풍조가 북한내부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 통로를 차단하고 봉쇄하자는 것을 말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2001년 2월22일자)는 미국 등 제국주의자들이 북한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해 부르주아 사상문화와 퇴폐적인 생활양식을 유포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모기장을 든든이 쳐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 당국은 최근 노동신문 사실을 통해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자본주의독소가 우리 지경을 넘어 서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이중삼중으로 든든히 치면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을 심리모락전을 물거품으로 만들기 위한 주동적인 작전을 전개하여야 한다.” 주장하고 있다. 『노동신문』, 2015년 7월 24일.

7) 사상전의 강조에 대한 가장 최근의 기사로는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노동신문』 2015년 7월 24일.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7

##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 II

---

## 북한 내 한류 경로와 시청 형태

1. 시청방법 및 형태
2. 남한 영상물의 취득 및 경로
3. 최근 김정은 시대 북한 내  
외래문화 확산 매체

## II 북한 내 한류 경로와 시청 형태

### 1. 시청방법 및 형태

#### (1) 남한 방송 직접 시청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방법은 대략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TV를 통해 남한 방송을 직접 시청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DVD 및 노트텔(중국산 EVD플레이어)등 저장매체를 통해 시청하는 형태다.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로 남한과 가까운 접경지역과 동해안 근처 일부지역에서는 남한 방송이 직접 수신된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텔레비전을 구입하면 우선 해당 지역 보안서<sup>8)</sup>에 가서 등록을

---

8) 북한의 보안기관으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이 있다. 인민보안성은 평양의 중앙조직과 각 도·시·군 보안서 및 말단 조직인 분주소(파출소)로 조직되어 있다. 인민보안성은 치안 및 질서유지 업무를 기본으로 한다.

해야 한다. 북한당국은 채널을 조선중앙TV로 고정하고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봉인지를 붙인다. 검열이 나왔을 때 봉인이 없는 텔레비전은 압수를 당한다. 그런데 북한주민들은 남한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집에 등록된 텔레비전 이외에 별도의 텔레비전을 숨겨놓고 시청한다고 한다. 또한 봉인지를 떼고 방송을 본 뒤 다시 붙여 놓은 방법도 사용된다. 남북한은 컬러텔레비전 수신 방식이 각각 NTSC와 PAL로 차이가 있는데 중국산 텔레비전의 경우 이 두 가지가 모두 수신되는 겸용이기 때문에 방송을 수신할 수가 있다.

남한이 텔레비전 지상파 방송을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현재도 북한에서 남한 방송이 직접 수신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최근 북한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디지털 방송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남한 방송이 수신된다고 한다.<sup>9)</sup> 남한 방송을 직접 수신하여 시청하는 것은 날씨와 전파 수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방송수신을 통해 제대로 된 영상을 보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고 한다. 북한에서의 남한 방송 시청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인터뷰를 해보면, 남한 방송 수신 시 화면이 나옴성 수신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드라마 전체 내용을 파악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북한에서 주로 남한 방송을 시청하는 시간대는 저녁 9시 이후가 많다. 텔레비전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모포로 창문을 가리고 등록된 텔레비전 외에 별도로 숨겨놓은 소형 텔레비전으로 남한 방송을 시청했다고

---

9)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동완, 박정란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부산: 너나드리, 2015), p. 562 참조.

한다. 어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북한에 있을 때 텔레비전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갈까 이불 속에 들어가 몰래 애청했던 드라마는 KBS의 <열아홉 순정>이었다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남편은 다른 방에서 북한 보도를 시청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다른 방에서 별도의 텔레비전으로 남한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시청의 세대간, 성별간의 차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누가 보면 안되니깐 문 걸어 놓고, 안테나 잡으면 잡히니깐, 남한방송에 한국사람 광고나, 6시 내고향 같은 것 보고... 누가 문 두드리면 이불에 감춰놓고.. 소형 텔레비전이 단속품이니깐 몽땅 다 감춰놨요. 집을 본래 다 수색하는데, 우리는 남편이 직위가 있어서 그러지는 못하고... 그러다가 한국 드라마하면 애들하고 빛 나가면 안 되니깐 이불 쓰고 같이 보고... 남편은 처음에 그거 왜보냐고 그러고, 남편은 보도 같은 거 보면 우리는 다른 방에서 애들하고 이불쓰고 <열아홉순정>하고 다른 드라마 봤거든요. (30대 여성, 2007년 탈북, 평안남도)

한편, 남북한 접경지역이 아닌 북중 접경지역은 중국 방송이 수신되는데 이 때 중국 채널에서 방영하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국 연변지역 채널에서는 매 시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방영하기 때문에 중국과 접경을 접한 북한지역에서도 방송이 직접 수신된다. 중국 접경지역과 가까운 사람들은 중국 채널을 통해 수신되는 한국 관련 뉴스를 시청하며 관련 정보를 얻었다고도 한다.

## (2) 저장매체를 통한 시청

남한 영상물이 북한에서 확산되는 배경에는 영상물을 시청할 수 있는 재생장치, 즉 북한에서 ‘녹화기’라 불리는 영상매체의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남한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없는 내륙지역은 북한에서 ‘알판’이라 불리는 DVD를 통해 영상을 시청한다. 북한에 남한 영상물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무렵에는 CD, DVD 등을 재생할 수 있는 영상재생매체가 주로 유통되었다.

물론 이 시기 이전에는 북한에서 ‘밴포’라 칭하는 VHS(가정용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 방식)가 유통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 시기에 비디오 테이프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라기보다는 간부들을 비롯한 특권계층에 한정되었다. 또한 상품이 유통될 수 있는 장마당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VHS를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북한에서 남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이른바 ‘아랫동네 알판’이 장마당에서 비싼 가격에 거래되면서 저가의 중국산 EVD(Enhanced Versatile Disc) 플레이어가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했다. EVD 플레이어는 미국이 주도한 비디오 압축기술인 DVD를 대체하기 위해 중국이 개발한 새로운 포맷의 영상기술 방식이다. 중국산 EVD 제품은 저가로 공급되면서 북한 지역에 대량으로 유통되었다. 이 제품은 북한 당국이 통제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밀수뿐만 아니라 북중 간 공식무역을 통해서도 북한으로 유입된다.

EVD 플레이어의 장점은 CD, DVD 재생은 물론 최근 파일저장 매체로써 주로 사용되고 있는 USB를 직접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EVD 플레이어는 자연스럽게 USB사용의 확산을 이끌었다. 특히, USB는 휴대가 간편하고 북한 당국의 검열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북한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USB를 활용하여 한국영화와 음악을 듣기도 하며, 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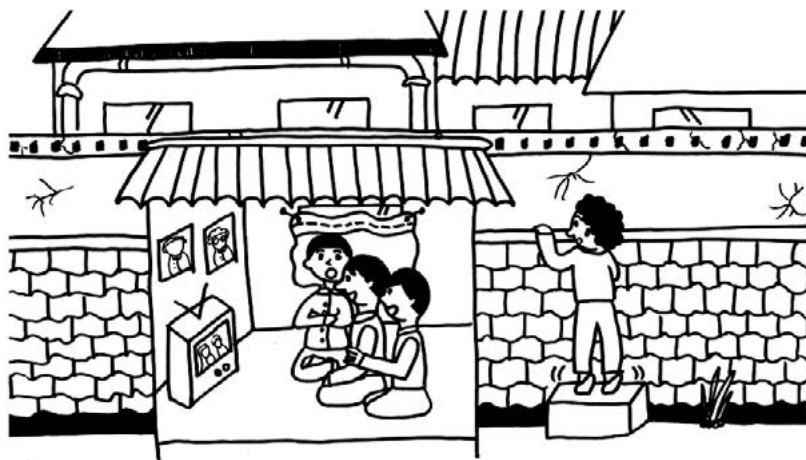
가 용이하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USB를 서로 돌려가며 파일을 공유한다고 한다. 또한 EVD 플레이어는 단순히 영상물 시청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게임도 할 수 있는 게임플레이어 단자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도 주요한 특징이다.

### (3) 돌려보기, 모여보기, 바꿔보기

남한 영상물은 북중 접경지역의 비공식 거래와 장마당을 통해 북한 내부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외부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 이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우려하여 단속과 통제를 강화한다. 하지만 남한 영상물이 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상품으로 가치가 높아지면서 북한에서 ‘한류’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북한에서도 남한 영화 DVD를 구하면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를 돌려보거나 바꿔본다고 한다. 또한 젊은 세대들은 혼자 몰래 보는 것보다 함께 모여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고 말한다.

어느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자녀가 친구들과 함께 남한 영상물을 방에서 보고 있을 때 자신은 밖에서 망을 봤다고 한다. 남한 영상물 시청이 단속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머니로서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어머니가 밖에서 망을 볼 때 마음을 졸였던 이유는 단속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자신 역시 드라마 내용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남한 영상물을 단속하는 검열원이 압수한 물건을 자신의 친척이나 지인들과 돌려보거나 전문 상인들과 결탁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일



출처: 강동완·박정란, <한류, 통일의 바람>(서울:명인문화사, 2012), p. 116.

단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다 단속되면 DVD나 USB는 물론 녹화기를 비롯한 재생장치까지 압수당한다. 그런데 검열원이나 단속원이 압수한 물건을 폐기하지 않고 자신의 지인에게 몰래 전달하기도 한다. 단순히 지인에게 전달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연계된 상인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시청과 확산이 계속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엄격한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는 폐쇄사회로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호 감시가 이루어지는 체제로 알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그 중에 한명은 스파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로에 대한 감시는 엄격히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북한사회에서 남한 영상물을 혼자만 몰래 시청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거나, 서로 돌려봤다는 증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와 많은 차이가 있다. 북한주민들이 북한 당국의 감시를 피해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 (4) 북한 군인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sup>10)</sup>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경우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군대 내에서도 남한 영상물 시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중 접경지대의 경비가 허술해지고 뇌물을 통한 정보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북한 내부 문서가 유출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한국 공영방송인 KBS는 지난 2014년 10월 20일 저녁 9시 뉴스를 통해 <북한 군대 내 남한 동영상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단독기사를 보도했다. 기사의 주요 내용은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와 북한 당국이 이를 어떻게 단속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해당 기사는 북한 군대에 배포된 내부 문서를 입수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였는데, 「포치 및 조직사업 문건」, 「당강습자료」, 「당위원회 집행위원회 확대회의」라는 제목의 문서들이다. 북한의 「학습제강」과 「강연자료」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전체 주민들에게 사상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사상 학습지침서라 할 수 있다.

이 문서를 분석해 보면 북한 군대 내 다양한 계급과 군인의 가족들, 종업원들까지도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남한 영상물을 어떤 매체로 보관,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시청하며, 이를 전파하는지 살펴보자.

문서를 통해 확인한 적발물들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남한 매체가 적발

10)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에 대한 내용은 강동완·김현정,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통일과평화』 제7권 1호(2015)를 참조한 것임을 밝힙니다.



〈표〉 문서 내 기록된 적발 사항 (대상자, 외래미디어, 이용한 매체)

피적발자	소속 및 직위	적발물	이용매체
A	인민무력부 직속 제3호 지휘부	괴뢰영화와 〈 〉 <sup>11)</sup> 외 1편, 일본성록화물 6편, 괴뢰 TV연속극 〈 〉 외 7편, 미국영화 〈 〉 입력, 보관	외장하드
B	...의 부관	괴뢰색정전자도서 〈 〉 1-3권, 괴뢰미신자료 〈 〉, 〈 〉 외 20개	노트형 컴퓨터
C	총참모부 지휘정보국 직속 제10통신련대 5통신결소속	괴뢰영화, 〈 〉 외 1편과 괴뢰 TV극 〈 〉 외 2편, 괴뢰화면음악 〈 〉 53편, 괴뢰음악 30곡, 괴뢰전자도서 〈 〉 외 27개	티카드 손전화
리수향	316련대 포대대 경비분대장	〈등불〉, 〈소중히 하자〉, 〈세월아 가지말아〉 노래 가사	수첩 메모
한설경	613련대 1대대 경비분대 대원		
박경옥 및 녀성군관	316련대 2대대 화력부 중대장		
전경섬	315련대 1대대2중대 부중대장	비법복사한 영화	소형 TV
박영남	316련대장	-	소형 TV
옥추봉 및 3명 군관	613련대 작전상급참모	통로 고정 없이 1년 이상 TV 사용	가정 내 TV
로철웅	1대대 정치지도원	무단 만수대 TV 시청	가정 내 TV
길영남	사단 훈련부과장	등록 및 고정 절차 무시 만수대 TV 시청	가정 내 TV 소형 TV
최명환	사단 중기계참모	등록 및 고정 절차 무시	가정 내 TV
전영남	315련대 직속 기관포소대장	-	자체조립 라디오
김성이	316련대 3대대 7중대 부중대장	-	자체조립 라디오
허동성	315련대 참모장	남조선 번역판 중국예술영화 〈태공천사〉	-
장원철	포병련대 대령서기	수십 장의 사회풍 가족사진	컴퓨터

11) 해당문서에는 모두 남한 영상물로 언급되는 제목을 〈 〉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된 경우 대부분 ‘괴뢰’라는 용어를 붙이는데 ‘괴뢰영화, 괴뢰색정전자도서, 괴뢰TV연속극, 괴뢰음악, 괴뢰화면음악(뮤직비디오)’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문서에는 외래 국가 적발물로 미국영화 ‘일본 성록화물’ 그리고 ‘남조선 번역판 중국예술영화, 불법유통 중국영화 및 중국TV극’ 까지 포함되어 있다.

외래 미디어 시청 및 유포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금지된 가족사진 촬영 및 보관과 사진 촬영 시 ‘우리식’ 즉 정해진 자세가 아닌 자유로운 포즈를 취한 ‘사회풍’을 검열하고 있음을 다음의 문서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포병련대 대렬서기 장원철은 컴퓨터에 수십장의 가족사진들을 입력시켜놓은 것을 비롯하여 우리식이 아닌 행동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현상과 사회풍을 끌어들이 부대, 구분대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서 내에서는 외래 미디어, 남한 및 외국의 영상물이 어떻게 유통되는가에 관한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즉 어떤 매체들을 단속하였는지, 또한 해당 매체를 시청할 수 있는 도구는 무엇인지까지 문서 내용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사용된 매체는 CD, 외장하드, USB, DVD, 노트북컴퓨터, 컴퓨터, 티카드, 손전화(이동전화), 가정 내 TV, 소형 TV, 자체 조립 라디오(라디오) 등으로 다양하다. 위 표에서 피적발자 C의 경우, 티카드와 손전화를 이용해 외부 미디어를 시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다음의 문서 내용에 해당 매체의 유통경로와 시청 수단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 총참모부 지휘정보국 직속 제10통신련대 5통신결속소 ...은 지난 1월 초 평양 제 2 병원 구급과 ○○○으로부터 괴뢰영화, < > 외 1편과 괴뢰 TV극 < > 외 2편, 괴뢰화면음악 < > 53편, 괴뢰음악 30곡, 괴뢰전자도서 < > 외 27개가 들어있는 티카드를 받아가지고 91훈련소 후방부 군의부 ...의 집에서 그의 딸과 함께 손전화로 보다가 적발되었다.

위의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적발자 C의 경우 불법 영상물의 구입경로인 전달자, 영상물 관람 장소, 함께 본 가족 등이 전체적으로 드러나 단속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북한에서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동전화(손전화)를 이용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동전화(손전화)를 통신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영상물 시청이나 카메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래문화 접근 방법으로 인터넷과 위성텔레비전이 언급되었다. 북한에서 방영하지 않은 중국영화, 드라마(TV연속극) 등 ‘불순 녹화물’(목란 비디오<sup>12)</sup>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대상 이외의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물론 북한군 내부의 정보 통제와 자본주의 및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엄격하고 비판적인 학습과 감시 상황을 고려하면 외부 대중매체의 유입만으로 이들에게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력한 단

12) 1992년 12월 설립된 목란비디오사는 비디오나 CD, VCD, DVD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기관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당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대동하고 목란비디오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2011년 9월 10일.

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부매체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의 군대 내부에까지 유입·확산되고 있다는 점은 주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 시대 4년차로 접어들면서 체제 내구력 및 변화 여부는 북한사회를 분석하는 주요한 연구주제라 할 수 있다. 북한 체제 유지의 근간으로 볼 수 있는 북한군의 기강 및 의식변화 여부는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과 체제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2. 남한 영상물의 취득 및 경로

### (1) 장마당에서 취득·대여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으로 인한 배급제의 붕괴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다. 농장이나 기업소에 출근해서 배급을 받아 생활하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장마당을 통한 경제활동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북한 당국의 국가공급제가 무너지자 배급제에 매여 살던 주민들이 장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닥치는 대로 장사에 뛰어들었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무엇이든 팔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거래되었다. 이렇게 확대되기 시작한 장마당에 각종 상인들이 등장했고, 기업소의 생산자재도 장마당에서 거래하는 물품이 되었다. 심지어 북한 장마당에서는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품목이 거래된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구조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방식처럼 북한 장마당에서 인기리에 거래되는 품목은 북중 접경지역

을 통해 밀수되어 북한 내륙으로 확산되었다. 이 중에서 남한 영상매체 시청을 위한 녹화기나 수상기도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졌다.

북한 주민들은 하드웨어(녹화기, 수상기)를 장마당의 매대에서 구입한다고 한다. 장마당에서 상인들이 매대에 진열해 놓거나, 구입을 권유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래를 하는 방식이다. 녹화기의 경우 북한 당국이 규제하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 구입한 녹화기 역시 텔레비전과 같이 해당 보안서에 가서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검열 시 회수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짜로 등록증을 만들어 붙인다고 한다.

북한에서 녹화기가 한참 유통될 때,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녹화기의 전원이 꺼지는 경우에 녹화기 안의 DVD가 자동으로 배출되는 제품은 등록승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검열 시 남한 영상매체 등을 숨길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녹화기에 대한 단속은 주로 아파트의 전원을 먼저 차단시키고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전기가 차단되어 전원이 꺼지면 녹화기 안에 들어 있던 DVD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물을 그대로 적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영상물을 입수하는 과정은 장마당을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앞서 언급한 하드웨어(녹화기, 수상기)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마당 매대에 직접 내놓고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남한 영상물이 담긴 DVD(알판)는 불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거래할 수 없다. 장마당에서 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인이 있지만 이 상인 역시 평소에 친분이 있거나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주로 판매를 한다고 한다.

장마당에서 DVD(알판)를 파는 상인은 매대 위에 북한영화 DVD(알판)를 진열해 놓고, 이른바 ‘아랫동네에서 온 것 있느냐’고 물어보는 손님이 오면 상품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은밀하게 거래를 한다고 한다. 장마당에서 DVD(알판)를 돈을 주고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한의 비디오 대여점과 같은 방식으로 CD나 녹화기를 빌려주는 대여업도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 드라마의 경우 편수가 많기 때문에 직접 구입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 단위로 빌려서 시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구입해서 보관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번 시청한 후 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비용도 적기 때문이다.

특히, 단속 대상이 되었을 때 물건 소유자에 대한 추적이 이루어지고, 처벌도 더 높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 보는 방식이 더 선호된다고 한다.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직접 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뇌물을 주고 사건을

장마당에서 몰래 팔아요. 맨 처음엔 장마당에서 한국알을 막 팔았어요. 처음에 한국알이 들어왔을 때... 암튼 다 장마당이죠. 밀수로 들어오는 거 다 몰래 사고 팔고. CD알 전문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딱 봐가지고 팔기도 하고 안 팔기도 하고. 아는 사람들끼리 통해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한국 알은 믿을만한 사람들끼리 내통하는거죠.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죠... 그리고 간부들이 한국 드라마 많이 봐요. 안전원들도 많이 봐요. 단속해서 자기네들이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많이 봐요. 윗대가리들도 많이 썩었지. 죽어 나는건 평민이지. 중국사람한테 부탁해서, 중국에서 사면 싸요. 한 알당 2000원이라면 북한에 오면 한 만원씩 팔아요. 장마당에서도 팔고, 들고다니면서 아는 사람들에게 몰래 팔 수도 있는거고.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한테만 매매하는거죠. 중국에선 싸죠. 이윤이 높죠. 그러니까 막 목숨 걸고 하는거예요. (30대 여성, 2009년 탈북)

무마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범사례에 걸리거나 특별기간 중에 단속되면 재산압수는 물론 경우에 따라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한다. 일명 ‘한국알’이라고 불리는 남한 매체는 비록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품목이라도 처벌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단속을 피해 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거래가 이루어진다. 특히, 장마당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장마당에서는 거래되지 않고 서로 아는 사람끼리 입소문으로 거래한다고 한다.

## (2) 국경 밀거래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남한 영상물은 인기품목이기 때문에 중국 접경지역에서 물건을 들여와 북한 내륙 지역으로 유통하여 이윤을 많이 남겨 판매한다. 중국으로부터 물건을 직접 갖고 들어오는 대행자들이 있는데 화교들이 주로 그 역할을 한다.

남한 영상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청진시, 나진시, 혜산시 등 국경무역을 하는 곳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다른 지역에 가서 웃돈을 받고 판매하여 이윤을 남긴다고 한다. 특히 혜산 지역은 국경 무역도시로서 외부로부터 상품이 유입되는 기착지 역할을 한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압록강을 사이에 둔 북한과 중국의 두 도시가 매우 가까운 거리임을 알 수 있다. 혜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창바이(长白)지역은 북한 내로 유입되는 밀수 상품의 근거지이기도 하다. 실제로 겨울에 이 지역을 방문해 보면 눈 내린 압록강 위로 양쪽을 오간 사람의 선명한 발자국이 목격되기도 한다.

이 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밀수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비사회주의의 행위 단속반(비사회주의의 그루빠)<sup>13)</sup>의 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리가 기존에 인식하는 북한의 이미지를 떠올려 본다면 위로부터의 감시와 통제가 엄격히 이루어지는 북한에서 왜 이러한 현상을 철저히 단속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외부정보가 유입되는 근거지를 중심으로 중앙당에서 파견한 단속원들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앙당에서 검열이 나와도 이미 아래에서부터 조직적으로 뇌물을 상납하는 구조가 먹이사슬처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심지어 중앙에서 파견 나온 단속원들을 지방 간부



〈사진〉 양강도 혜산시, 출처: 필자 직접 촬영

13) 비사회주의의 그루빠(비사 그루빠)는 1992년 10월 북한 내부의 '비(非)사회주의적 현상'을 제거 및 감시하기 위해 김정일의 지시로 만들어진 비상설 검열대로 북한 전역을 활동범위로 삼는다.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서울: 통일교육원, 2013), p. 477.



들이 서로 결탁하여 따돌리거나 뇌물로 매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미 복잡하게 얽혀 있는 뇌물의 상납구조를 단번에 끊기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사진〉 양강도 혜산시 전경과 북중 국경 세관, 출처: 필자 직접 촬영

중국 접경지역에서 들여온 물건을 북한 내륙 지역으로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동수단이 있어야 한다. 남한영상물은 불법 물품으로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적인 방식으로는 유통시킬 수 없다. 즉, 국경지방에서 내륙으로 상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검열과 단속을 피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물건을 소지하여 판매 할 경우 이동수단으로 철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 때 철도 승무원들은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사람들의 배낭까지 일일이 검사를 하는데 철저한 단속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국경지방을 통해 들여온 물건을 북한 내륙 지방으로 가져가

서 판매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단속반원과의 뇌물을 통한 연계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인이 아닌 간부들과 결탁한 조직적인 상인들의 경우 기업소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뇌물을 바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이처럼 남한 영상매체는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맞댄 경계 지역에서부터 유통되기 시작해 자유로워진 지역 간 이동과 비공식적 유통경로를 통해 내륙지역까지 확산된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북한에서 한번이라도 남한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밝혀진 지역이다.<sup>14)</sup> 이 지역들을 화살표로 연결한 선은 남한 영상물이 유통되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주로 북중 접경지역 도시에서 북한 내륙지역으로 확산되는데 양강도 혜산지역에서 출발하는 화살표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중국과의 교역이 용이한 함경북도와 양강도 지역의 접경지역에서 주로 시작되어 평양을 비롯한 북한 내륙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연계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 내 유통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남한 영상매체를 북한 내륙까지 이동해서 판매하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북한에서의 남한 영상물 시청 및 유통 현황  
출처: 강동완, 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든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1)  
(서울: 늘품플러스, 2011).

14) 강동완, 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든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1), p. 43.

남한 영상물을 판매하다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이미 판매 자체가 ‘힘 있는 사람’과 결탁하지 않고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량 유통의 경우 일반 주민들이 혼자 장사를 하는 것은 쉽지 않고, 대부분 보위부나 안전부(국가안전보위와 인민보안부를 지칭)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단속반원이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물품을 자신과 연계된 상인을 통해서 재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검열을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철도승무원들이 금속 탐지기 그런 걸해서 검사해요. 살벌하게 하는데 거의 못 나가지. 만약에 해산에서 그때 당시 가격으로 13만원 했다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냥은 못 가지고 가고 열차 안전원 승무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거쳐 가는 거예요. 뒤로 돈을 주고... 아니면 화물 자동차 그런데에 넣어서 나가기도 하고... (50대 여성, 2009년 탈북)

### (3) 복제품 취득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이 대량으로 복사되어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남한 영상물을 직접 복사해서 비밀리에 유통시키는 상인이 있는 것이다. 밀수를 통해서 공(空)CD를 대량으로 들여와 북한 내부에서 대량으로 복제품을 만들고 중간상인을 통해 유통시키는 방식이다.

제 동생이 거기 시장 그쪽에 살고 있으니깐 동생 친구들이 밀수를 많이 했어요. 가전제품이나 CD알 파는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깐 제가 밀수꾼한테서 직접 받지 못 한다하더라도 그 사람이 돈을 벌어야 되니깐 팔 수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리고 ○○에서 몇 집은 복사해서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복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걸리면 진짜 엄청하게 처리되는데... 제가 그들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 하죠. 그 사람들도 최대한 극비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날라서 다니지 우리들이 직접 날라가지고 오지는 못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CD알 같은걸 많이 못 날라오니깐 국경을 어쨌든 건너와야 되니깐... 그 빈알들을 가져다가 빈 알은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사례 85, 50대 여성, 2009년 탈북)

북한 내부에서 직접 CD를 복제해서 유통시킨다는 사실은 북한의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9년 북한에서 발간된 「법투쟁 부문 일꾼들을 위한 참고서」라는 내부 문서를 보면 이러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북한 인민보안성<sup>15)</sup> 출판부가 발간한 이 문서는 ‘갈렙선교회’라는 국내 단체가 입수하여 언론사를 통해 주요 내용이 발표되었다.<sup>16)</sup> 이 문서는 당시 북한사회상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건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어떻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해설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 내용 중에 사회주의문화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부분이 있다. 이 중 남한 영상물 유통 및 시청에 관한 사건들이 언급되었다. 이를 살펴보면 북한 내부에서의 남한

15) 인민보안부는 치안 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국가기구로서 우리의 경찰청에 준한다. 2010년 4월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되면서 인민보안성에서 인민보안부로 개칭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와 함께 북한의 3대 체제 보위기구이다.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교육원, 2013), p. 477.

16) 『국민일보』는 2011년 6월 19일자 기사를 통해 이 문서와 관련한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하였다.

영상물 유통구조와 시청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 중의 한 사례는 북한 내부에서 남한 영상물을 직접 복사하여 유통한 사건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한 주민이 CD복화물을 판매하다 단속되었는데 내용을 보니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부르조아문예작품으로 밝혀졌다. 출처를 확인해보니 어떤 사람이 자기 집 옷방에 복사설비를 갖추어 놓고 CD판에 복사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사건”(2009년 인민보안성 발간 “법투쟁부문 일꾼들을 위한 참고서”)의 내용 중 일부 인용.

이 사건은 북한에서 외부영상물 유통이 화교나 중국을 왕래하는 상인들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CD 복사와 같은 방식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 (4) 영상물 시청을 위한 ‘전기구하기’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생장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전기가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은 열악한 북한의 전기난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을까?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해 전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계층에 따라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전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이다.

북한의 전기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지만 전기가 들어오는 일정 시간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기가 일정한 전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되는 전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대부분의 북한주민 가정

에서는 변류기나 변압기 같은 장치들을 필수적으로 구비해 놓는다고 한다. 가정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자동차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군부대에 있는 고위층의 경우 탱크 배터리를 통해 전기를 구한다고 한다. 일반 주민들은 남한 영상물 시청을 위해 중국산 소형 텔레비전을 12V 배터리에 직접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아래 사진의 12V 배터리는 전기가 들어올 때 전원선을 연결하면 배터리가 충전되는데 이 배터리를 노트북과 같이 12V를 사용하는 영상재생장치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한다. 이 배터리는 주로 12V영상재생장치나 조명 등을 연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가격은 한화로 3만원 정도이다. 이 제품보다 더 품질이 좋은 것은 가격이 6만원 정도 하며 무게가 무려 14킬로그램이나 되는 대용량인데 배터리에 전기 잔량이 디지털 숫자로 표현되며, USB 단자가 배터리에 부착되어 있어서 핸드폰을 바로 연결하여 충전할 수도 있다.



〈사진〉 열악한 전기사정으로 인해 대안으로 확산되는 12V 배터리, 출처: 필자 직접 구입 및 촬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자가발전발동기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한다. 자가발전발동기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는 계층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다. 북중 접경지역 도시의 국경세관 근처에는 북한 무역상을 상대로 자가발전발동기를 판매하는 상점이 많다. 자가발전발동기의 가격도 용량에 따라 다양한데 소형

발전기부터 공장에서 가동하는 대형발전기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부 상위계층에서는 직접 가정 내에 전신주를 세워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보위부나 안전원에게 뇌물을 주고 연계되는 형태이다.



〈사진〉 북중 접경지역 국경세관 근처 상점의 가정용발전발동기 광고 전단

최근에는 태양열 발전기까지 중국을 통해 합법적으로 거래되어 유통되고 있다. 국경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태양열 발전기는 북한에서 다양한 전기제품이 사용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아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북중 접경지역의 북한 무역상을 상대로 하는 상점에서 판매되는 태양열 발전기의 광고 문구는 〈10시간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태양열발전기〉라 명시되어 있다. 이 발전기를 통해 텔레비전, 노트북, 핸드폰, 선풍기 등의 가전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전단지의 사진이 매우 흥미롭다.



〈사진〉 북중 접경지역도시 국경세관 근처 상점 간판: 태양열발전기 광고, 출처: 필자 직접 촬영

‘태양능발전기’의 경우 용량이 크고 가격이 고가인 장비들도 거래되지만, 일반 주민들의 경우 태양열 집열판을 이용하여 전기를 얻어 가정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형제품을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제품은 북중접경지역 도시 상점에서 한화 2~3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으며, 북중세관을 통한 공식무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다.



〈사진〉 북한주민들이 사용하는 태양열 집열판, 출처: 필자 직접 구입 및 촬영

### 3. 최근 김정은 시대 북한 내 외래문화 확산 매체

#### (1) 디지털매체의 확산과 진화

앞서 살펴본 중국산 EVD플레이어는 북한에서 일명 ‘노트텔’로 불린다. 노트텔은 노트북과 동일한 크기로 액정화면이 10인치부터 15.1인치까지 다양하며 모양은 노트북과 비슷하지만 TV 전파가 수신되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노트텔이라고 한다. TV 전파의 직접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남한 영상물이 담긴 CD(DVD), USB 등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중국 방송에서 나오는 한국 관련 영상 시청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사진〉 북한에서 노트텔로 불리는 중국산 EVD플레이어, 출처: 필자 구입 및 촬영

충전하면 4시간 가량 영상시청이 가능하며 무엇보다 녹화기(비디오재생 장치)처럼 별도로 텔레비전을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휴대하기가 쉽다는 점이 장점이다. 기존의 시청방식이 집에서 녹화기와 텔레비전을 연결해야 하는 공간상의 제약이 있었다면 노트텔은 휴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을 피하는데 용이하다.

중국에서 복제된 한국 영화나 드라마 DVD(알판)는 한화 1,000원 정도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남한에서 드라마가 종영되고 약 1주일 정도만 지나면 곧바로 20부작 드라마도 DVD(알판) 두 장 정도에 복제되어 거래가 되고 있다. 노트텔의 확산은 DVD(알판)보다 USB의 확산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노트텔은 DVD와 USB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아래 내용과 같이 단속을 피하는 기발한 방법이 동원된다고 한다.



(사진) 중국에서 복제된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 DVD, 출처: 필자 직접 촬영

남조선 영화 최근에는 메모리로 많이 봅니다. 이제는 백공구(\*109 상무조를 의미함)<sup>17)</sup>가 검열 와도 일이 없단 말입니다. 메모리 뽑아서 감춰버리면 되니깐 조선 CD알, 예를 들면 홍길동 같은 것을 넣어 놓고 USB에 남조선거 넣어서 보니까...단속 나오면 USB만 빼서 숨기면 되니까 걸려도 문제없지요.(북한주민의 증언)

북한에서 USB의 확산은 콘텐츠 파일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USB에 파일을 담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사진관으로 불리는 기업소에서 주로 담아준다고 한다. 공(空)USB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 공식무역으로 북한을 통해 유입

17) 109상무조는 지난 2004년 한국 드라마와 음란물의 북한 내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전담 단속반으로, 주요 역할은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정보의 내용과 시설, 디지털 통신기기를 추적·단속하며,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 외국영화를 유통하거나 본 사람들을 적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된다. 여기에 컴퓨터를 소유한 전문상인이 남한 영상물을 복사해 유통시킨다. 물론 처음부터 한국영화나 드라마가 들어 있는 USB가 밀수를 통해 전문적으로 북한으로 유입된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도 있다.

## (2) 태블릿 PC와 MP5의 유입 및 확산<sup>18)</sup>

최근에는 중국산 저가 태블릿 PC를 이용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산 태블릿 PC는 한화 9만 원 정도면 최소 사양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노트텔이 북중 접경 지역을 거쳐 북한의 내륙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어 사용된다면, 태블릿 PC는 접경지역의 밀수업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태블릿 PC는 노트텔과 비교할 때 더욱 소형화된 제품이라는 것과 단순히 영상시청에 그치지 않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마이크로 SD카드 단자가 있어 USB보다 더욱 경량화, 소형화된 파일저장매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북한에 유통되는 최소 사양(카메라 화질 및 CPU속도)의 태블릿 PC는 노트텔과 비교될만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예를 들면, 충전시간이 짧는데 반해 재생시간은 10시간 이상이며, 영상재생 시 화질 HD화소가 높다. 또한 HDMI<sup>19)</sup> 단자 및 마이크로 SD카드, USB 등의 저장장치를 사용할 만큼 확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어 사진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이 노트텔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노트텔이 단순히 영상시

18) 최근 북한에서 디지털매체의 확산에 대한 내용은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 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2014), p. 177-178 참조.

19) HDMI는 PC를 모니터에 연결하기 위한 표준인 DVI를 발전시킨 새로운 디지털 인터페이스로 외부기와 연결하기 위한 확장성을 증가하기 위한 단자이다.

청을 위한 용도라면 태블릿 PC는 전자사전, 카메라, 동영상 촬영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다.



〈사진〉 태블릿 pc의 앞, 뒷면 모습과 확장단자, 출처: 필자 구입 및 촬영

한편, 북한에서 애플피오로 불리는 MP5 미디어 기기도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전의 MP3가 음악재생을 위한 용도였다면 MP5는 고화질 영상시청을 위한 용도로 주로 사용된다. 이 기기의 장점은 노트북과 같이 휴대하기 용이하다는 점과, USB보다 더 소형인 마이크로 SD카드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마이크로 SD카드의 소형화는 남한영상물 시청 단속을 피하는데 매우 유용하면서도 저장용량은 크다는 게 장점이다. 또한 영상재생 뿐만 아니라 전자사전, 라디오, 음악파일 재생, TV수신 등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MP5가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이유는 건전지를 통해서도 재생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는 북한의 전기사정을 감안할 때 매우 유용하다.

### (3) 북한에 부는 이동전화(손전화) 바람

북한에 유입된 정보가 북한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데에는 이동전화(손전화)의 역할이 크다. 북한 당국은 지난 2004년 용천역 폭발사고 시 내부 소식이 이동전화를 통해 외부로 급속히 확산된 것을 계기로 이동전화 사용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이집트 오라스콤과 다시 이동전화 사업을 재개했다. 고려링크<sup>20)</sup>는 서비스 마케팅을 위해 현재 평양에 4개의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9곳의 조선체신회사 영업소에서 선불통화카드(scratch cards)를 판매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당정 관료나 엘리트들만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편견과 달리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1)</sup> 2009년 6만9천261명이었던 가입자수는 다음해 43만1천919명으로 늘었고 2011년에는 100만명, 2012년 170만명, 2013년 242만명으로 급증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15년에 발표한 2000~2014년 국가별 이동전화 가입자 통계를 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수는 2014년 기준 280만 명으로 추정된다.<sup>22)</sup>

북한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이동전화는 이제 지방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전화 없으면 장사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평양 이외 지방의 경우 주로 장마당에서 장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산 제품을 비롯하여 장마당에서 인기리에 거래되는 제품은 도매상에게 전화로 미리 예약하지 않

20) 고려링크는 북한 체신청과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만든 합작회사로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름이다.

21) 윤희창, 고경민, “북한 이동통신의 현황과 과제,” 『사이버사회문화』, 제2권 1호(2011), p. 70.

22) “북한 ‘휴대전화’ 얼마나 쓸까,” 『연합뉴스』, 2015년 8월 22일.

으면 그 물건을 구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이동전화는 장사를 위한 필수품이 되고 있으며,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장사의 목적으로 빚을 지고서라도 구입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의 경우 기본적인 통화용보다는 영상시청이나 음악을 듣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한다.<sup>23)</sup> 또한 북한사회에서 체면문화로 인해 이동전화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sup>24)</sup>



〈사진〉 3G 방식의 폴더형 제품



〈사진〉 터치스크린 방식의 스마트폰

주목할 점은 북한에서 사용되는 이동전화 일부가 중국에서 복제된 제품이라는 점이다. 필자가 중국에서 구입한 북한 이동전화 내부 시스템과 상표는 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명 껍데기로 불리는 북한상표를 부착하고 본체는 중국산 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 강동완,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 인문학』, 제60집(2014), p. 18.

24) 북한에서 2013년에 제작된 “체면 바람에”라는 영화를 보면 북한에서의 체면문화의 심각성을 잘 보여 준다. 이 영화는 딸의 결혼을 앞둔 어머니가 사돈에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직장에 있는 집기류를 집으로 모두 옮겨 놓고 자랑한다는 내용으로 비사회주의 문화인 ‘체면문화’를 없애야 한다는 사상교육이 주된 내용이다.

‘류성’이라는 상표와 시스템은 모두 북한 언어로 되어 있지만 본체는 중국산 제품인 것이다. 북한에서 직접 구입하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복제된 이동전화 기기를 값싼 가격에 구매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남한 영상물 시청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녹화기와 텔레비전을 연결하여 DVD(알판)로 주로 시청하던 기존의 방식을 넘어, 노트북, MP5(엠펜오), 태블릿PC, 이동전화(손전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 내륙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당국의 감시와 단속을 피해 다양한 방식으로 남한 영상물을 시청함에 따라, 이를 충족하기 위한 디지털 매체의 유통 역시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남한 영상매체의 확산: 노트북, MP5, 태블릿pc, 손전화



〈사진〉 남한 영상매체의 확산, 출처: 필자 구입 및 촬영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7

##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 III

---

## 한류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1. 남한에 대한 생각 바꾸기
2. 정치·사회적 내용에 대한 인식
3. 북한내 한류의 역기능

# III

## 한류와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 1. 남한에 대한 생각 바꾸기

북한에서의 한류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주민들이 어떠한 의식변화를 겪는가의 문제 때문이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교양과 학습을 통해 남한과 남한사람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늘 강요받은 북한 주민들이 직접 남한 영상물을 통해 본 남한은 어떤 모습이고, 그들이 남한 영상물을 통해 보고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

북한 주민들이 남한 영화, 드라마 등을 시청하면서 의식변화를 겪는 과정은 그동안 북한에서 교육받던 남한의 모습과 다른 현실을 목격하게 되면서 그 현실에 대해 '왜 그럴까'라는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된다. 남한 영상물을 통해 발전된 남한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발전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할 것이다. 그러한 의문은 남북한 상황에 대한

비교로 이어지고 양 체제에 대한 인식 변화 과정의 첫 단추가 되었다. 예를 들어, ‘왜 남한은 쌀이 남아돌까?’라는 의문은 ‘남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도 많다.’는 기존의 사상교육 내용과 분명히 다른 것이었다. 남한 영상물을 통해 본 남한의 농촌 모습은 농부가 손으로 직접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모두 기계화 되어있는 풍족한 모습이었다.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을 접한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 당국의 사상교육과 학습을 통해 알고 있던 기존의 남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새롭게 알게된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남한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 ‘헐벗고 굶주린 사회’, ‘씩고 병든 자본주의’ 등으로 선전해왔다. 그런데 남한 영상물을 통해 보는 남한의 모습은 교육받은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남한 영화와 드라마 내용에 몰입하면서 등장인물의 상황이나 정서에 공감하는 동시에 남한에 대한 거부감이 수그러들고 내용에 동화되는 과정도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영화나 드라마는 사회주의 혁명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으로써 제작되지만, 남한 영상물은 북한 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활 속 소재로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의식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보면 영상물 시청 이전이나 이후에 영상물 내용을 확인하는 계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영상물 내용과 관련된 경험이나 정보가 누적되면서 남한 영상물의 내용을 각인하고 확신하게 된다. 아래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먼저 탈북해서 남한에 가 있던 누나가 통화로 전달했던 이야기, 체제선전과 남한 비방을 위해 북한TV에서 방영했던 내용, 중국을 넘나들던 부모님에게서 들은 외부 정보, 두만강에 떠내려 온 시체를 목격하는 등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남한 영상물에서 접한 내용들과 일치되면서 이에 대해 확실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는 어느 날 먼저 탈북해서 남한에 있는 누나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누나는 북한에 여전히 남아있는 동생에게 탈북을 권유하며 자유를 전했다고 한다. 이념 속의 자유가 아니라 생활 속의 자유였다. 남한에서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는다는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그에게는 정보를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 그 때 본 것이 맞구나'하며 남한 뉴스, 드라마에서 본 내용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북한에서 살면서 받아온 교육의 틀을 깨기는 어려웠지만, 남한 영상물에서 본인이 간접적으로 체험한 내용과 누나를 통해 전해들은 내용이 겹치면서 지금까지 교육받아 온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벗어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거기 USB에 뉴스가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서 남한에 대해 밥을 말 해주고, 아 남한이 진짜 강하구나. 그리고 진짜 남한은 자유가 너무 많다. 먼저 남한에 온 누나와 전화통화를 하는데, 거기서는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진짜 자유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누나가 연설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 당시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했지만,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실제 잘 안들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렇게 배우지 않으니깐... 그런데 누나가 이렇게 연설을 해주는 것을 들으면서 아... 내가 본 그것이 다 사실이로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20대 남성, 2010년 탈북, 함경북도)

북한 주민들의 경우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장면에서도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들 방에 가득 놓인 장난감(북한말로 울동완구)을 보면서 남한이 발전했다는 사실을

느꼈다고 한다. 길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많고 아파트도 너무 좋아 보여서 드라마 내용보다 그 배경화면에 더 눈길이 갔다고도 한다. 남한 영화와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들의 피부가 너무 좋았고, 매 장면마다 바뀌는 옷들은 정말 화려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또한 한국 드라마에서 외국의 모습이 그대로 배경으로 나오는 것이 신기하며, 외국에서 촬영을 할 정도면 얼마나 발전했을까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남한 영상물의 장르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작된 내용과, 조작되지 않은 내용을 구분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어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처음 본 남한 영상물이 드라마였는데 이 때는 거리 모습이나 배경 등이 모두 꾸며진 거짓이라고 인지했다고 한다. 그런데 드라마가 아닌 <6시 내고향>이라는 교양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남한의 발전상을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드라마에서 보이는 화려한 거리나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6시 내고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농촌의 기계화된 모습이나 농민들의 밝은 모습을 보면서 남한이 정말 발전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다.

## 2. 정치·사회적 내용에 대한 인식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처음 느끼게 되는 소감 중에 정치적 소재의 내용을 보면서 남북한의 정치상황을 비교하는 사례도 있었다. 북한 영상물이 대부분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고양과 국가관에 대한 내용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정치적 내용이 북한 주민들에게 흥밋거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한 정치체제 차이에서 비롯된 현실에서 분명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의 억압적 통치방식을 비교하게 된다.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소재나 내용이 북한 주민들의 시선에는 새로운 정치적 도전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라마 「야인시대」를 보면서 남북한 정치 상황을 비교하게 된 경우가 있다. 남한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방하고 정치적 발언을 하는 모습이 북한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인상적이었다는 것이다. 한 북한이탈주민의 표현을 빌리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서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단속 대상이었다고 한다. 단속반에 돈을 주거나 TV, 녹화기 등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작은 죄목이라도 들춰내서 죄 값을 치르게 했다.

북한은 돈을 좀 많이 벌었잖아요. 그럼 바로 보안서나 보위부에서 그 사람을 체가요. 너 돈 어떻게 이래 많이 벌었냐, 이래요. 또 거기서 자기네를 도와달라, 도와 안주면 이 사람들은 꼬장을 해가지고 뭐 진짜… 쥐꼬리 만한 죄라도 잡아 내가지고, 또 감방보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록상기 해달라, TV 해달라 이래요. 그 사람들은 또 해줘야 되요. 안해 주었다가는 또 잡아요 그리고 몇 배 손해 배상금을 내라 이렇게 하니깐… 그것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20대 남성, 2010년 탈북, 함경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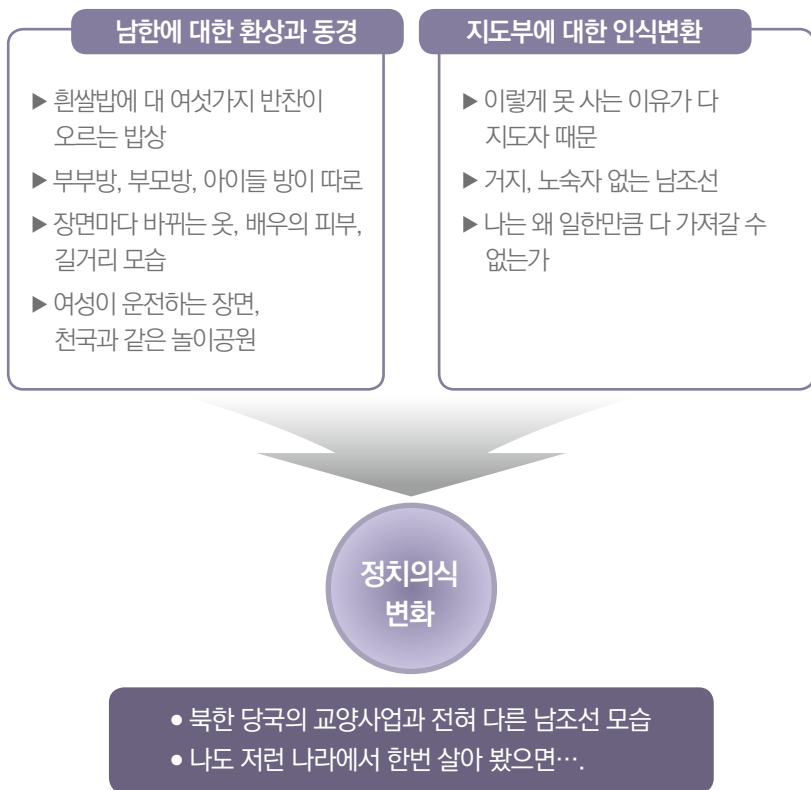
어느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자유란 일한 만큼의 보상과 자신이 번 돈으로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남한 드라마에서 그러한 장면을 시청하면서 ‘언제면 진짜 저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해가 뜨기 시작해 어두워 질 때까지 아무리 일해도 보상이 없었다. 그렇기에 북한에서는 먹고 살만큼만 일하

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에 나가도 할 일이 없어 노는 사람이 늘어났다. 하지만 남한 드라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일할 땐 일하고 놀 때는 놀고, 일해서 번 돈으로 여가를 즐기는 모습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주민들의 정치, 사회적 의식변화는 무엇보다 자신들이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과 학습을 통해 굳어진 남한의 모습이 실제로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남한 영상물에서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배경으로 해도 항상 흰쌀밥에 대어섯 가지 반찬은 밥상에 올랐고, 큰 집에는 식구마다 방이 따로 있었다. 장면마다 배우들의 옷이 바뀌었고 배우들의 피부는 너무 고왔다. 여성이 운전하는 장면에서 충격을 받았고 만약 천국이 있다면 한 드라마의 배경이 된 놀이공원이 정말 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한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게 되었고 한다.

남한의 발전상을 남한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한 북한주민들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북한 지도부에 대한 인식변화로도 이어졌다. 남한은 잘 사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사는지, 이렇게 못사는 이유가 다 지도자 때문은 아닌지, 나는 왜 일한 만큼 다 가져갈 수 없는지 등 북한의 정치현실을 보는 새로운 시각이 생겨났다. 이들이 남한 영상물을 통해 ‘나도 저런 나라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향후 남북한 통일과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독일 통일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그러했듯, 체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북한주민들이 분단의 상황에서 남한 체제를 동경하고 부러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들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나라로 인식되는 남한의 모습이 통일된 국가에서 자신이 살아갈 나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다.



〈그림〉 남한영상을 시청과 북한주민의 의식변화



### 3. 북한내 한류의 역기능<sup>25)</sup>

북한 내 한류가 남북한 통일과 북한사회 변화에 역기능적인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자. 북한 내 불고 있는 한류의 바람이 마냥 남북한 사람을 하나로 묶어가는 순풍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북한에서의 한류가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남한 영상물의 폭력성과 선정성 등은 정보수용의 양에 제약을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왜곡된 상을 심어줄 우려도 있다.

미디어 시청 이전 학습된 내용이 미디어 내용과 겹치면서 확인, 강화되는 것을 미디어 이론에서는 기폭효과(priming effect)라 한다. 기폭효과의 특성 중 하나는 수용자가 미디어 내용을 접했을 때 미디어 내용에 동화되는 정도와 방향은 상황특이성, 그리고 프로그램 특이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상업성이 뚜렷한 영화, 선정성·폭력성 그 외에도 특정 내용이 부각되는 드라마 등이 자극적 효과를 주게 되면서 미디어 수용자가 특정 내용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 북한에서 남한 미디어를 시청하는 과정에서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배금주의’, ‘폭력성’, ‘인간관계’ 등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먼저 배금주의에 대해 살펴보자. 남한 영상물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25) 북한에서 한류현상이 갖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의는 강동완, 박정란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2012) 참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지 과정에는 북한 당국이 남한에 대해 교육하는 내용이 ‘확인’되면서 ‘강화’되고 있었다. 미디어 시청 이전 북한 당국이 남한 사회에 대해 ‘지주 자본가들이 판치는 사회’라고 교육한 내용이 각인된 상황에서 남한 드라마, 영화에 등장하는 특정 내용이 부각되어 인지되면서 남한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확대, 강화되는 것이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도 저버리는 군상을 그린 남한 영상물의 내용을 시청하면서, ‘그저 못된 인간들’로 남한 사람들을 인지하기도 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불쌍한 삶은 다름 아닌 ‘지주 자본가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희생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이는 곧 북한 당국으로부터 교육받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사실이 남한의 미디어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폭력성에 대해 살펴보자. 남한 미디어에 ‘깡패’, ‘조폭’ 등이 자주 등장하면서 남한 사회에 대해 정서적 두려움과 함께 폭력적인 사회라는 인지가 강화된다. 남한 사회 전체를 폭력성으로 규정짓는 인지 틀이 형성되는 과정에도 남북한을 대조하거나 북한에서의 교육 내용이 교차되면서 확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한사회가 ‘오직 돈 많은 사람들이 판치는’ 곳이며, ‘남조선 인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인식, 그리고 ‘무서운 세상’이라는 인식 등인데 이는 남한 미디어 내용 중 폭력적 장면이 부각되어 남한 사회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는 것이다.

또한 남한 미디어를 수용하는 북한 주민의 인식 속에서 남북한이 대조를 이루면서 남한의 폭력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에도 젊은 사람들이 살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남한은 집단으로 움직이

는 ‘깡패가 차고 넘치는’ 곳이라는 점에서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력성을 지닌다고 인식한다. 무엇보다 조직폭력배들이 집단으로 움직이며,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은 사회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남한의 폭력성이 그들의 인지 속에 비교되며 부각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남한 미디어를 통해 들여다 본 남한은 아들에 대한 집착으로 며느리를 학대하면서까지 가정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는다거나(영화 <올가미>), 사랑하거나 결혼하고도 외도하는 사회로 그려진다. 이러한 남한 사회의 이미지는 심층면담 참여자들에게서 ‘난잡함’, ‘자본주의 부패성’, ‘공포심’으로 표현됐다. 북한에 있을 때 영화 <올가미>를 시청했다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착하며 며느리를 학대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회주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라며 북한과 비교했다고 한다. 또한 남한 미디어를 통해 남한사람들은 ‘맨날 바람피우는’ 사람들로 인지하기도 했다. 북한에서는 소수에 국한될 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남북한을 비교하며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미디어 시청을 통해 인지한 남한에 대한 이미지는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남아 있기도 하지만 남한 미디어 시청 횟수가 누적되면서 남한에 대해 형성된 극단적 이미지가 완화되기도 한다. 남한 영상물을 접할 수 있는 시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시청 누적량에 따라 남한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북한 주민은 폭력이 난무하는 장면들을 마주하면서 북한에서 교육받은 자본주의 남한의 폐해를 재확인하게 되었다. 남한의 자

본주의에 대한 공포를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 <대장금>을 시청하게 되면서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겪는다. <대장금>에서 주인공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남한사회는 진실이 통하는 곳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경험한다. 이 외에도 드라마 <올인> 시청을 통해 배우들의 진솔한 감정표현을 경험하며 진실감을 느끼게 된다. 남녀 간에도 존댓말을 쓰는 드라마 장면을 보면서 남한사람에 대해 호감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여자만 남자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점에서 남북한 사람 간에 비교가 이뤄지기도 한다. 또한, 남한의 발전상을 목격하면서 남한에 대한 거부감이 상쇄되는 과정도 파악된다.

이와 같이 남한 영화, 드라마 시청이 반복되면서 북한에서 교육받은 남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재확인하기도 하고, ‘성취’, ‘진실’ 등 남한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형성되기도 하면서, 남한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재정립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반복된 외부 정보와의 접촉 경험이 줄 수 있는 기회와 한계에 대한 시사점을 준다. 기회란, 반복된 정보의 접촉이 북한 내에서 이뤄진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고정관념을 넘어 인식의 틀을 재구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계란, 외부 정보를 접하되 어떤 내용을 자주 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남한 미디어 중 특정 장르, 주제, 프로그램 등을 자주 접하게 될 때 인식 변화의 내용도 특정 내용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 이는 남한에 대해 극단적 낙관론, 비관론으로 치우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남한에 대한 왜곡된 인상이 낙관적이던 비관적이던 간에 극단으로 고착

화되는 것은 향후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 시 서로에 대한 이질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면 통합의 성공여부는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남한 미디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남한 체제, 그리고 사람들의 면면을 속속들이 마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 미디어 시청 수준과 인식 변화 추이는 향후에도 면밀히 추적해 나가야할 부분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통해 형성된 인식과 남한 미디어 외 여타 정보 등이 접합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부는 더욱 중요하다. 남한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적, 긍정적 인식 모두 남북한 통합과정에 오히려 역작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 내 한류 현상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통일의 순풍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7

##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 IV

---

## 한류확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1. 북한 당국의 외래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2. 비사회주의 단속반(비사회주의 그루빠)를 통한  
단속조 운영

# IV 한류확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남한 영상물이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에 대한 환상과 동경을 갖게 하고 북한체제에 대한 불만을 품게 하는 등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면 북한 당국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통제하려 할 것이다. 4장에서는 북한의 한류현상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에 대해 알아보자.

## 1. 북한 당국의 외래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북한당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공세를 자유화 바람이나 황색 바람으로 규정하면서 체제 유지를 강화해 왔다. 이전 김정일 시대부터 외래문화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강조했는데 김정은 시대에도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북한당국은 외래문화 유입에 대해 “인간의 건전한 녀을 흐리게 하는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유포시켜 우리의 사상진지를 허물려는 제국주의자들



의 침략책동”이라고 주장한다.<sup>26)</sup>

북한 당국은 남한 영상물 시청을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남한 영상물에 대한 시청과 유통을 강력히 단속하고 있다. 최근 노동신문의 기사를 보면 연일 비사회주의 행위와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 봉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상전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 당국은 외래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청년들의 사상약화를 강조하는데, 이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과정에서 청년들이 외래문화로 인해 사상문화적으로 흔들린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지난 시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에 문을 열어놓은 동유럽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사회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자기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데 앞장섰던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새 세대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든 나라와 민족에는 사실상 전도가 없으며 종당에는 쇠퇴 몰락을 면할 수 없다. 청년들을 노린 부패한 부르조아사상문화는 이처럼 극히 반동적이며 그 후과는 매우 치명적이다.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마수가 청년들에게 뻗어지고 있다. 청년들은 적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의 본질과 위험성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그것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이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펼치는 사상전은 여러 가지 근거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2월 평양에서는 주민의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이 대규모로 참석한 가운데 8차 당 사상일꾼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제국주의사상침투에 대한 당의 지침

26) 노동신문, 2013년 7월 18일.

27) 전영희, “청년들을 목표로 한 반동적사상문화침투책동,” 『로동신문』, 2014년 10월 19일.

을 마련'하기도 했다. 2014년 6월 28일자 북한의 노동신문 기사에서도 '사상전'을 강조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사상전은 핵무기 위력보다 더 강하다'고 언급하고 있다.<sup>28)</sup> 김정은의 아이콘으로 볼 수 있는 모란봉악단의 창단 배경 역시 사상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모란봉악단의 음악은 대중의 심장에 투쟁, 애국의 불을 지펴 사상적 무기가 된다"<sup>29)</sup>고 주장한다.

사상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역시 북한에서 새세대로 불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다. "부르조아 제국주의자들이 특히,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반동적이며 퇴폐적인 사상문화를 침투시켜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해 날뵈다"는 기사와 함께 "모란봉악단의 음악포성은 혁명적, 전투적, 참신한 작품으로 핵폭탄보다 위험한 사상의 미싸일이다."라고 언급한다.<sup>30)</sup>

북한에서 강조하는 사상전은 권력공고화와 3대 세습에 따른 김정은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선동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김정은에 대한 유일사상과 충성심을 강조하는 사상전은 북한사회의 유일지도체계와 사상이 한편으로는 강하지 않다는 점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북한 당국은 법적으로도 외부정보 유입과 유포를 엄중히 통제하고 있다. 북한 형법 제6장<sup>31)</sup>은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를 다루고 있다. 그

28) 『로동신문』, 2014년 6월 28일.

29) 『로동신문』, 2014년 11월 25일.

30) 『로동신문』, 2014년 5월 14일, 2014년 10월 7일.

31) 북한은 지난 2014년 4월 형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6장)'를 별도의 장으로 독립

내용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그림, 사진, 도서, 녹화물과 유연성 자기원판(CD-ROM) 같은 기억매체를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유포한 죄(193조)를 열거하고 있다.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체계적으로 들었거나 삐라, 사진, 녹화물, 인쇄 유인물을 수집 보관 유포한 자(195조)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2. 비사회주의 단속반(비사회주의 그루빠)를 통한 단속조 운영

북한 당국은 남한 영상물의 유입,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적 변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여러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단속하고 있다. 남조선 영상물을 시청하지 말라는 사상학습교육을 시키는데 젊은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특별히 강조된다고 한다. 강연회를 통한 사상교육뿐만 아니라 실제로 남한 영상물 시청 및 판매 행위 단속과 비사회주의 양식에 대한 통제강화를 위해 일명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운영한다. 일명 비사그루빠로 알려진 합동단속반원은 불시에 가택을 수색하며 위장단속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단속에 적발되면 노동단련형, 타지 추방이나 교화형 등에 처한다. 만약 시청빈도가 높거나 남한 영상물을 대량으로 복제, 유통시킬 경우 때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벌의 유형 중 다른 지역으로 추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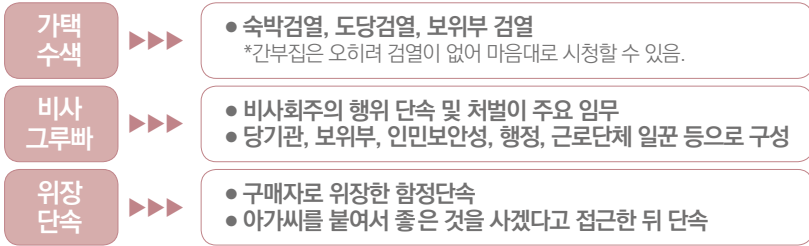
시켰다. 또한 '반국가 선전·선동죄'의 경우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조항을 신설해 반국가목적이 없더라도 '공화국'을 반대하는 방송을 들었거나 유인물 등을 수집·보관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당하는 사례도 있다. 처벌의 수위는 노동단련대-추방-노동교화소 순으로 이루어진다. 노동단련대에 가는 것이 추방을 당하는 것보다 강도가 약한 처벌이라고 한다.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이나 옷차림새 등을 남한식으로 따라하는 비사회주의의 현상을 단속하기도 한다.

단속은 비사회주의의 단속반의 가택 수색이나 검열 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북중 접경지역의 경우 탈북을 위해 모여드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숙박 검열을 하는데 이 때 남한 영상매체 시청이나 소유 등에 대한 단속도 동시에 이뤄진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신고만 해도 가택 수색을 당할 정도로 단속이 엄격하다고 한다.

북한 내부 정세 불안, 남북한 간의 긴장 고조, 집중 검열기간 등 경비가 특별히 강화될 때는 숙박 검열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이 경우는 거의 가택 수색에 가까운 정도로 철저히 수색을 한다. 북중 접경지역에 살았던 어느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접경지역과 가까운 특정지역은 365일 거의 검열 없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고 증언하는데, 비사회주의의 단속반의 검열이 끝나면 도당 검열, 보위부 검열 등이 있다고 한다. 특이한 점은 당 간부들의 집에는 숙박 검열이 없어 발각될 우려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당 간부 집에서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검열 단속반은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데 한 단속반의 인원은 약 100명 정도이며 이러한 단속반이 지역마다 5-6개 정도 운영된다고 한다. 또한 단속을 위해 일반주민을 가장한 함정 단속도 있다고 한다. 적발 시 북한 내부 상황이나 단속원의 실적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데, 조사 결과 중가장 처벌 수위가 낮은 경우는 노동단련형이었다.



〈그림〉 남한영상을 시청과 거래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북한당국의 조치

당 중앙에서 실시하는 집중단속기간에 적발되면 뇌물을 주고도 처벌을 피해가기가 어렵다고 한다. 어느 기관에 단속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수위도 달라진다. 해당지역에서 근무하는 안전원이 단속에 나선 경우 벌금을 내거나 뇌물을 주고 풀려날 수 있지만 비사회주의 단속반이나 당 중앙에서 파견 나온 단속원에게 적발되면 봐주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단속이 이루어져도 뇌물을 통한 봐주기 현상이 만연한 것이 현재 북한사회의 이면이라 할 수 있다. 단속반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외래문화 확산을 엄중한 법으로 모두 처벌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 단속이 단속반원의 부를 축적하거나 진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특히, 장사를 통해 많은 돈을 번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단속하고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겨 가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집중적으로 단속할 때가 있어요. 막 가택수색도 하고 그랬거든요. 영장도 없이… 북한은 영장도 없이 그냥 집에 와서 다 쑤시고 그래요. 집집마다 테이프, CD 그런거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세계 단속하니까 그걸 천정에다가 숨겨놓고, 아궁이 밑에다가 넣어 놓고, 근데 그걸 다 찾아내요. 찾아내서 몰수 하고 그나마 벌금이니깐 괜찮은데. 보다가 안전원한테 걸리면 벌금 내고 찾을 수 있지만, 그루빠나 중앙에서 내려온 사람한테 걸리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재판도 없어요, 보다가 바로 걸렸으니까. 며칠 구류장 있다가 곧바로 교화소로 가요. (20대 여성, 2008년 탈북, 함경북도)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7

##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 V

---

## 한류와 북한사회의 변화

1. 주민의식 변화에 따른 사상통제 이완
2. 시장과 한류 동반 확산
3. 한류와 신세대
4. 남한 따라하기 현상

# V

## 한류와 북한사회의 변화

북한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근간은 무엇보다 북한주민들을 외부정보의 철저한 통제속에서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체제순응형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은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자신들이 사는 나라가 '세상에 부러움 없는 나라'이며, 전 세계 많은 인민들 가운데 유일하게 수령을 모시고 사는 '수령복을 누리는 나라'로 인식했다. 하지만 중국을 오가는 사람들과 밀수를 통해 유입되기 시작한 남한 영상물의 영향으로 간접적이거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게 되었다. 남한과 인접한 북한 지역에서는 남한 방송이 직접 수신되는가 하면, 북중간 밀수를 통해 남한 영상물이 CD와 USB 등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한국 콘텐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폐쇄된 지역에서 엄격히 정보를 통제하던 북한 사회에 외부정보가 유입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고 이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줄 수 있



는 틈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한류는 과연 북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 1. 주민의식 변화에 따른 사상통제 이완

남한 영상물이나 외부정보가 북한 내부에서 확산되는 현상에서 중요한 맥락은 북한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북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북한주민들은 오랜기간 신문, 방송, 강연 등에서 남한의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 반복적으로 주입받으면서 자연스럽게 남한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사회전반에 ‘의식화’라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우월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여기에 수령의 영도라는 절대적 신념 체계가 형성되면서 ‘사회주의 인간형’으로 개조된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의 남한 영상물 시청으로 외부정보가 축적됨으로써 남한의 발전상을 동경하고, 북한 당국의 선전과 학습을 거짓으로 인지하게 된다면 사상과 충성도의 이완으로 인한 체제 내구력이 약화될 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학습교양을 통해 주입받은 ‘혈빛고 굶주린 남한,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남한’이 아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유가 있는 남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반문과, ‘나는 왜 일한만큼 얻을 수 없는가’ 등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

다. 국가와 정권에 귀속된 부속물로서의 인간이 아닌, 사적 욕망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는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일상의 저항문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 2. 시장과 한류 동반 확산

북한에서 시장은 북한 당국의 공식적 허가과 북한 주민들의 장마당을 통한 비공식적 거래 방식을 통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 시장의 확산은 물물거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정보가 유통되고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상쇄해 가는 기능을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북한에서 한류 확산의 근거에는 시장이라는 새로운 생존방식이 결합되어 있다. 시장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이는 단순히 상품의 거래뿐만 아니라 정보공유를 통해 정치적 의식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남한 영상물 시청 및 유통에 따른 계층적 분화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남한 영상물의 영향력은 북한 내 계층 허물기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겹겹이 단속시스템을 강화해도 중앙당에서 파견된 단속반원은 물론 뇌물을 통한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현상은 북한 체제 균열의 틈새가 될 수 있다. 단속이 이루어져도 뇌물을 통한 '봐주기 현상'이 만연한 것이 현재 북한사회의 이면이다. 단속반원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외래문화 확산을 엄중한 법으로 모두 처벌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으며, 단속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거나 진급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장사를 통해 많은 돈을 번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

해 단속하고 무마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겨 가는 행위도 일어나고 있다.

북한에서 남한 영상물은 시청 자체는 물론 관련 매체의 거래도 당연히 불법으로 간주된다. 북한은 비사회주의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남한 영상물 시청자들을 단속하고 장마당에서 관련 물건을 파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뇌물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는 현상이 만연하다. 또한 검열원이 압수한 남한 영상물을 자신의 친지나 지인들과 함께 돌려보는 경우도 있으며, 이를 상인과 결탁하여 조직적으로 판매하기도 한다.

필자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중국에서 북한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통일의식과 남한미디어 이용 실태조사><sup>32)</sup> 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들 북한주민은 탈북이 목적이 아니라 중국에 친지방문이나 장사를 위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들의 증언은 현재 북한주민들이 통일과 남한 그리고 북한실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80여개의 설문 문항 가운데 북한의 부정부패 상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북한에서 특정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뇌물을 준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00명의 대상자 가운데 90명이 뇌물을 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북한 주민들은 뇌물을 주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증언했다.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다 단속되면 비사회주의 행위

32)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동완, 박정란 『사람과 사람: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부산: 너나드리, 2015) 참조.

로 간주하여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단순시청자의 경우 뇌물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간부들이 뇌물을 목적으로 단속을 하며, 뇌물을 상납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증언도 있었다.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다 단속되었지만 담배나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비사회주의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해서도 뇌물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남한 영상물은 합법적 거래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북중간 밀수를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경경비대와 보위부, 안전부 등에 뇌물을 줄 수밖에 없다. 이처럼 북한에서 뇌물이 성행하는 것은 간부들의 체제충성도와 결속력이 약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사회의 시장화가 자체 동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화를 동력으로 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외래문화의 유입현상은 북한 당국의 미온적 정책변화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sup>33)</sup> 북한 당국으로서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장마당을 통한 생필품과 식량 등의 거래를 묵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장에서의 비법적 거래품목이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제하거나 폐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미 자생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밀수와 장마당은 일반 주민들로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연계된 부정부패의 뇌물 고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33) 전미영,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2014), p. 26.

### 3. 한류와 신세대

북한의 새로운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장마당 세대'라는 말이 있다.<sup>34)</sup>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북한 당국이 대내외에 내세웠던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배급이라는 복지 구호가 무색할 만큼 북한의 복지체제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바로 이 시기를 전후로 출생해 사회주의체제의 복지혜택을 실감하지 못한 세대를 일컫는 말이 장마당 세대다.

남한 영상물의 북한 유입 및 확대과정에서 세대간 갈등 및 인식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역시 북한체제 변화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는 인간의 자아의지가 형성되기 이전인 유아기부터 엄격한 사상교육과 통제로 체제순응형 인간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 시기에 고난의 행군을 겪은 이른바 '장마당세대'의 경우 공교육 구조의 붕괴로 인해 체계적인 사상교육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국가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세대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윗세대와 자신들을 구분 지으려는 청년 세대의 특성은 남한 영상물에 동화되는 경우가 많다. 즉, 기성세대와 자신들을 구별하려는 성향, 그리고 생애주기 특성상 또래집단을 중심으로 동류의식을 지향하려는 특성

34) 북한의 장마당 세대와 북한사회 변화에 대한 상세하는 논의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 장마당 세대: 그들은 누구이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인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2015년 6월 13일) 참조.

은 남한 영상물을 함께 모여서 시청하거나 내용을 공유하며 모방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남한 영상물에 대한 통제가 가해진다 해도 대담하게 반복 시청을 하는 특성이 있다. 남한 말투를 따라하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한국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이 포대에서 우월감을 나타낼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한다. 심지어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청소년들은 의식이 ‘깼다’고 표현한다.<sup>35)</sup> 청소년들의 모방하려는 특성상 어느 세대보다 남한 영상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으로 2000년대 초반을 전후해 북한 내에서 남한 영상물 시청 및 유통현상이 급속히 확산된 만큼 그 당시부터 반복적으로 남한 영상물을 10여 년 이상 시청해 온 세대들의 의식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시청 내용이 누적된 세대들의 의식 및 행위양식이 사회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4. 남한 따라하기 현상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남한 영상물 시청이 북한 주민의 의식화된 사상과 생각을 바꾸고 폐쇄적인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단 반세기가 지나면서 남북한 체제는 물론 생활문화적 측면에서의 격차도 커져 남북한 간 통합의 장벽이 되고 있다. 남한에 대한 정보가 제약되어 있던 북한 주민들은 과연 남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남한사람들의 생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따라하게 되었을까?

35) 강동완, 박정란, 『한류, 통일 바람: 아랫동네 날라리풍』 (서울: 명인문화사, 2012), p. 349.

북한 주민들은 남한 영상매체를 시청하고 의식이 변화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행위양식의 변화로 이어지는 문화적 모방 단계로 확대된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스타일을 따라하며 말투부터 패션에 이르기까지 나름의 개성을 표현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본 사람들을 ‘세련되어 진다’고 표현한다고 한다. 남한 영상물을 보면서 스타일을 모방하는 이른바 ‘남한 따라하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옷이나 헤어스타일, 말투 등을 따라하면서 사회적 일탈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체제저항의 요인으로서 하위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6)</sup> 70년의 분단 세월을 넘어 남북한 사람들의 문화접점이라 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남한 따라하기 현상을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남한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배우들의 헤어스타일을 따라 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또 하나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북한에서 미용사 일을 했다는 한 북한이탈주민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 잡지를 보면서 다양한 헤어스타일을 익혔다고 한다. 그리고 잡지를 뜯어 미용실에 붙여 놓고 손님들이 마음에 드는 헤어스타일을 선택하면 그대로 시술해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자연스러운 갈색은 단속되지 않았지만 원래 머리색에서 많이 벗어난 노란색 머리는 단속대상이다. 한 때 노란 머리를 시술하기도 했지만 잦은 검열로 시술이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손님 중에는 남한 영상물 CD(씨디알)를 가져와 영상물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 헤어스타일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나이가 19~22살 가량의 전문학교(예술학원) 학생이었는데, 배우의 머리스타일을 그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36) 북한에서 한류현상에 따른 하위문화 형성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박정란, 강동완 “북한 주민의 남한 영상물 시청: ‘하위문화(Subculture)’의 형성과 함의,” 『북한학보』 제36집 2호(2011) 참조.

는 것이다. 차마 자신의 미용실 내에서는 영상물을 시청하고 시술 할 수가 없어서 그 학생의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시술했다고 한다.<sup>37)</sup>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헤어스타일은 스트레이트 파마(직발)였다고 한다. 영화에서 머리모양을 보고 미용실에 가서 설명하면 유행에 민감한 미용사들은 그대로 해준다고 한다. 중국 영화에 나온 헤어스타일은 영화 이름이나 배우 이름을 대면 헤어스타일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그대로 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남한 영화를 보고서는 영화 제목이나 배우를 말할 수 없어 머리 모양을 설명해 주곤 했다고 한다.

헤어스타일에 이어 남한의 패션을 어떻게 따라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한국 영상물을 본 북한 사람들은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패션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것이 ‘땡땡바지’라고 한다. 남한의 스키니 바지를 일컫는 ‘땡땡바지’를 입고 굵이 15센티나 되는 킬힐을 신고 다니는 것이 유행했다고 한다. 립스틱은 빨간색만 바르던 것에서 짙은 밤색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패션 스타일의 변화는 단순히 사회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남한 배우들이 여름에 치마를 짧게 입고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시원하고 좋겠구나. 자유롭다’ 생각하며 ‘생활 풍습이 저렇게 변했구나, 자본주의 생활방식이 저렇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북한에서 치마는 무릎 밑으로 내려와야 했고, 윗옷은 어깨를 드러낼 수 없었으며 젊은이들의 노출 패션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었다. 길을 가다가도 단속원이 가위를 들고 단속 대

---

37) 강동완, 박정란, 『한류, 통일의 바람』 p. 308.



상이 되는 복장을 자르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헤어스타일과 패션뿐만 아니라 남한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남한 말을 이해하고, 따라하는 이른바 '남한말 흉내내기'에 대해 살펴보자. 북한에서 생활할 때 남한 영상물을 시청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말하는 남한 말이 낮간지럽게 들리고 '간사하다'고 느끼며 때로는 거부감이 들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남한 영상물을 보면 남녀는 물론 나이 어린 사람에게조차 존댓말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과는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발달한 극존칭어에 밀려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웃어른과 서로에 대해 존칭, 존댓말이 많이 사장되었는데 남한말은 존칭어를 통해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표시했다는 점이 좋았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외래어 발음을 그대로 따라해 보기도 하고, 분명하지만 부드러운 아나운서의 억양에 '악감정'이 녹아든다며 좋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랬니? 저랬니'라는 서울식 말투에 즐거워하며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함께 모여서 드라마 시청 중에 대사를 흉내 내다 다 같이 웃는 경험도 있었다고 한다. 같은 또래에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끼리는 서울 말씨를 쓰다가도 어른들과 이야기 할 때는 얼른 '본투'로 바꾸었다고 한다. 남한 영상물을 보면서 남한 말투를 따라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남북한 언어의 차이로 인해 알아듣지 못하는 표현도 많이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프로포즈'라는 말은 드라마에서 처음 듣는 외래어로 생소하게 들렸다고 한다.<sup>38)</sup>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한 주민들은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무엇

38) 강동완, 박정란, 『한류, 통일의 바람』 p. 310.

보다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한 영상물에서 보여지는 남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성에 맞는 옷을 자유롭게 입고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북한은 단속이 많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한다. 옷 입는 것에서부터 머리스타일까지 북한 당국이 일일이 단속하였고, 생활총화를 할 때도 비사회주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자주 말했다고 한다. 생활총화에서 '누구 머리 모양이 어떻고 누구 옷차림이 어떻고'라는 비판이 오가기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 영상물에는 누가 어떻게 하고 다녀도 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 자신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느꼈다.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퇴폐문화라 해서 옷차림이나 말투, 헤어스타일을 단속하고 있지만 북한주민들의 욕구를 완전히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가로부터 사상과 개인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자신의 스타일만이라도 개성 있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옷, 화장, 헤어스타일, 말투 등 남한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은 일상의 변화를 넘어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체제에 대한 회의감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47

##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 VI

---

## 한류의 영향과 통일

1. 한류의 영향과 새로운 기회
2. 문화로 여는 통일

# VI

## 한류의 영향과 통일

### 1. 한류의 영향과 새로운 기회

북한에서의 한류는 외부정보가 제한된 북한주민들에게 남한을 이해하는 기회의 창을 제공한다. 북한주민들은 평소 북한 당국으로부터 교육받은 왜곡된 남한의 모습이 아니라 남한 영상물을 통해 남한의 발전상과 남한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게 된다.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은 향후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마음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자신들이 살아갈 새로운 통일조국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조국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주민들에의 ‘마음연기’라는 관점에서도 북한에서의 한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왜곡된 남한의 모습이 아니라 한류를 통해 북한 주민

들 스스로 인식하고 느끼는 남한을 통해 통일에 대한 열망을 더욱 확산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한류를 통해 남한생활을 이해할 뿐 아니라 ‘남조선 사람, 북조선 사람’이 아닌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같은 사람’으로써 남한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통일조국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북한 사람들이 미리 통일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가치를 경험하고 동경의 대상으로서 매력적인 남한을 인식하는 것은 통일의지와 역량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북한주민들의 사상과 의식을 변화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북한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에서의 한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북한 당국은 외래문화의 유입을 ‘제국주의사상문화침투’로 간주하고 엄격히 단속,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외부정보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정보에 대한 요구는 외래문화를 확산하는 요인이 된다. 남한 영상물 시청과 관련한 영상매체는 북한 장마당에서 인기리에 거래되는 품목이다. 배급제 중단으로 인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장마당이 북한 내부에 한류를 확산시키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자유, 인권, 복지 등과 같은 한국사회의 가치를 북한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전파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수요와 공급이라는 자본주의 양식이 구조화되어 가는 북한에서 기존의 방식처럼 무조건 통제만 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저가형 디지털 제품 역시 북한에서의 영상물 시청을 확산하는 요인이 된다. 경제난으로 인해 전기가 부족한 북한에서 북한주민들은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기 위해 중국산 영상장치와 휴대용배터리 등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밀수를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관련 제

품들은 접경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유통된다. 이 과정에서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단속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내륙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 내륙지역으로 이어지는 밀수의 연계망은 국경 경비대 및 당 간부들과 조직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지난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국가와 당을 위해 충성해야 할 간부들이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 역사적 전례가 현재 북한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유일지도체제라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북한주민들의 외래문화 접촉에 의한 사상이완은 분명 기존의 사회주의체제 전환과정을 북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북한 당국 역시 변화하는 인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인민의 수준 높은 요구’를 반영하라는 북한 당국의 정치적 메시지는 북한 당국 역시 새로운 창작물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김정은 시대에 결성된 모란봉악단을 꼽을 수 있다. 모란봉악단 단원들이 입을 옷과 헤어스타일 등 패션은 기존의 북한식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며, 화려한 조명과 레이저 쇼, 무대장치 등은 한국 공연 모습과 매우 비슷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sup>39)</sup> 아울러 외래문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철

39) 모란봉악단의 공연 내용을 분석해 보면 1999년 이후 진행되어 온 남한 방송사들의 방북대중공연의 영향과 김정은 정권의 외래문화 수용에 대한 결과라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오기현, 『평양 걸그룹 모란봉악단- 남북 문화교류의 창』(서울: 지식공감, 2014),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서울: 선인, 2014) 참조.



저한 단속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새세대들의 변화 양상은 향후 북한체제 변화의 주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고난의 행군 시절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로 체계적인 사상학습을 받지 못하고 외래문화를 경험한 새세대들의 성장은 기존의 북한식 통치체제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당국은 한류를 엄격히 통제하려 하지만, 주민들은 은밀하게 한류를 지속적으로 접함으로써 이는 제한적, 간접적이거나 남한 문화로의 접근 통로를 제공한다. 외래문화의 접촉을 통해 이완된 사상의식과 자본주의 행위양식을 체득하고 있는 북한주민들과, 이를 단속하고 통제하여 체제를 고수하려는 북한 당국 사이의 충돌이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확산이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이완시킬 수 있지만 한류가 직접 북한 사회변화, 나아가 혁명적 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엄격한 북한통제 시스템에 일정부분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균열요인이 북한체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체제내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균열의 틈새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의 위로부터의 권력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이를 주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변화라 할 수 있는 북한주민들의 사회적 이탈과 외래문화 수용의 방향과 속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흥밋거리 즐기기를 넘어 북한체제에 대한 저항과 반감 등으로 이어지는 의식변화와 상품들의 시장 유통 그리고 간부들의 부정부패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미시적 행위들이 북한체제라는 거시적 단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2. 문화로 여는 통일

분단 70년의 세월은 남북한 사람들 간의 문화, 정서, 인식의 단절을 초래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어찌면 이제 우리의 선부는 기대일지도 모른다. 남북한이 한동포라 말하지만 언어, 음식, 외형, 취향 등의 문화적 이질감은 분단의 시간이 만들어 낸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다. 오랜 기간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의 통일 논의는 통일의 제도와 경제적 편익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일이 되면 잘 살 수 있다는 개념은 남북한 주민들의 일상의 모습보다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는 통일편익에 강조점을 둔 것이다. 통일이 되어 남북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 통일이 가져다 줄 편익임은 분명하다. 부산에서 출발해 서울과 평양을 거쳐 유라시아 횡단철도로 대륙까지 연결되는 원대한 비전을 갖는 것도 분명 가슴 벅찬 일이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도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임에는 분명하다.

한편 인간은 이성과 감성을 겸비했기에 감성과 인지에 기반을 둔 통일담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통일이라는 과제가 개인의 삶과 생활에서 동떨어진 국가영역의 일로 치부되어 개인과는 무관한 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 이제는 일상생활과 멀리 떨어진 거대담론으로서 통일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직접 인지할 수 있는 통일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폐해가 우리의 실생활에 스며있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에 고착화된 분단의 일상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제도와 법적 부분에서 하나가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통일의 당사자인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통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정치, 경제적 차원의 통일이익이나 제도만의 통일이 아닌 ‘사람간의 통합’이라는 문화와 정서적 접근을 통해 실제로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확산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통일을 사유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통해 지속적인 통일의지와 실천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준비는 최근 변화된 북한 사회상의 재인식과 북한 주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이 상호 문화적, 정서적 동질감을 형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단의 시공간으로 인한 관계의 단절에서 사람 간 회복을 통한 가슴 따스한 통일을 이야기해야 한다. 문화적 접근을 통해 북한사람에 대한 일상과 마음을 이해하고, 공통의 인식적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 이후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서 북한사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정 통일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 스스로 공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로의 마음에 형성된 적대감과 왜곡된 이미지를 넘어 따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의 통일’은 결국 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치사상적 대립으로 적대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길은 문화적, 정서적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에서의 한류는 간접적이거나 남북한 사람들의 정서적 교류의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중문화의 공유를 통해

남북한 문화접점이 이루어지고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은 바로 남북한 사람들의 마음의 벽을 허무는 통일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통일 25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동서독 출신 주민들의 정서적 통합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은, 통일과정에서 우리의 통일논의가 사람의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살아갈 통일조국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얻는 전략이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통일준비인 것이다. 북한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 스스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는 것도 분단을 극복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의 대중문화가 북한주민의 마음에 녹아들어 남한사회를 동경하고 통일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 때 통일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같은 문화와 취향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의 장벽을 서서히 허물어 가는 것이야말로 남북한 주민 모두가 실천 가능한 통일준비라 할 수 있다. 언젠가 이루어질 통일을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에 의해 만들어 지는 과정으로서 통일을 인식하고 문화적 장벽을 허물어가는 것이 통일을 위한 우리의 실천담론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치와 사상의 대립을 넘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동질감의 회복이 바로 문화로 여는 통일인 것이다.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끝없는 두 개의 평행선처럼 정치, 제도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남북한이 서로 만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과 마음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까. 분단 70년의 갈라진 장벽의 시간들이 만들어 놓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의 통일을 위해 남북 간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통일 논의가 ‘미래 언제 이루어지게 될...’ 모호성과 추상적인 측면이었다면, 이제는 남북한 사람간의 문화적 공유와 공감을 통해 구체적인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사람들의 대중문화를 통한 ‘같은 추억 만들기’는 적대적 이념과 사상을 뛰어넘는 가슴 따스한 통일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의 한류는 문화로 여는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하고 동질감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녹이고 하나의 마음을 엮어가는 통합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해 통일을 희망한다면, 먼저 분단의 상처로 깊이 패인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문화적 동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주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대중문화는 정서적, 인식적 차원에서 남북한 주민 간 심리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동완.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한다』. 서울: 선인, 2014.
- \_\_\_\_\_. “북한으로의 외래문화 유입현황과 실태: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60집, 2014.
- 강동완·김현정. “북한 군대 내 남한 영상물 시청 실태 및 북한 정권의 대응.” 『통일과평화』, 제7집 1호, 2015.
- 강동완·박정란. 「사람과 사람 :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부산: 너나드리, 2015.
- \_\_\_\_\_. 『한류, 북한을 흔들다』. 서울: 늘품플러스, 2011.
- \_\_\_\_\_. 『한류, 통일의 바람』. 서울: 명인문화사, 2012.
- \_\_\_\_\_.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 \_\_\_\_\_.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와 전망: 모란봉악단 공연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4년 봄호.
- \_\_\_\_\_.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영향: 지역간·대인간 연결 구조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 곽정래·박승관. “새터민의 매스미디어 이용과 사회적응.” 『한국언론학보』, 25권 3호, 2006.
- 김창희.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주민의 가치관 변화.” 『한국동북아논총』, 제52집, 2009.
- 박정란·강동완.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왜곡된 남한 상(像).”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 \_\_\_\_\_. “북한주민의 남한 미디어 수용과 인권의식 변화.” 『북한학연구』, 제9권 제2호, 2013.
- 오양열. “북한 내 외래문화 유입으로 인한 영향과 전망.” 『플랫폼』, 제26호, 2011.
- 윤선희. “북한 청소년의 한류 읽기: 미디어 수용에 나타난 문화 정체성과 사회 변화.”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2011.
- 윤인진. “북한이주민의 문화변용과 사회적응.” 『한국학연구』, 제41호, 2012.
- 임석준·강동완·김현정. “한류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학연구』, 제10권 2호, 2014.
- 이교덕·임순희·조정아·이기동·이영훈.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미나·오원환.** “북한 및 제3세계에서의 한류 수용 경험과 한국 문화 적응.”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32호, 2013.
- 이주철.** “북한주민의 남한 방송 수용 실태와 인식 변화.”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0호, 2002.
- 이창현.** “탈북자들의 남한방송 수용과 문화적응: Q방법론을 통한 방송프로그램 선호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4권 2호, 2000.
- 전미영.** “북한의 외래문화 수용 실태와 문화전략: 북한 텔레비전 방송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 통일교육원.** 『북한지식사전』, 서울: 통일교육원, 2013.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류백서』,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2013.
- Bremmer, Ian.** 2006. *The J Curve: The New Way to Understand Why Nations Rise and Fall*. New York: Simon & Schuster.
- Ingel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목록

- |                        |                          |
|------------------------|--------------------------|
| 01 대북협상, 어떻게 볼 것인가?    | 24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
| 02 대북지원, 새롭게 보자        | 25 미래를 위해 남겨 놓은 과거, DMZ  |
| 03 먹거리를 통해본 북한 현실      | 26 미래지향적 학교통일교육의 구현      |
|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 27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의       |
| 05 21C 국제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 28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
| 06 남북관계 발전의 법적 이해      | 29 권력이 세습되는 북한           |
| 07 남북한의 역사 인식 비교       | 30 변하는 북한 변하지 않는 북한      |
| 08 남북한 예술 어떻게 변화였나?    | 31 북한 여성의 일상생활           |
| 09 남북한 IT 용어 비교        | 32 문화예술에 비친 북한의 일상       |
| 10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 33 FTA와 한반도 통일환경         |
| 11 북한법을 보는 방법          | 34 강성대국의 허와 실            |
| 12 정보화 시대, 북한의 정보화 수준  | 35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
| 13 북한 과학기술의 이해         | 36 북한사람이 들려주는 북한이야기      |
| 14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 37 통일교육과 민주시민교육          |
| 15 알기 쉽게 풀어 쓴 통일이야기    | 38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방안과 과제     |
| 16 북한의 환경정책과 그 실태      | 39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다          |
| 17 북한의 종교실상과 남북종교교류 전망 | 40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      |
| 18 북한의 의료실태            | 41 북한의 양면성               |
| 19 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특징     | 42 통일과 인문학               |
| 20 북한의 관광자원 실태와 전망     | 43 교과서에 안 나오는 북한의 교통 이야기 |
| 21 북한의 체육실태            | 44 영화로 보는 통일 이야기         |
| 22 북한 문화재 실태           | 45 남북정치공동체 형성방안          |
| 23 북한의 대남전략            | 46 북한, 도시로 읽다            |



주제가 있는 통일 강좌 47

##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비매품〉

**발행일** 2015년 11월

**발행처**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

0101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전화 02)901-7161~7 팩스 02)901-708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

**편집/인쇄** 웃고문화사 02)2267-3956

발간등록번호

11-1250054-000153-01

통일교육원

[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